

##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유 백 산<sup>1)</sup>

### 요약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와 그 영향력을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부모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정배경뿐만 아니라 종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주목받아왔던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을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문제를 수립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업성취 및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매개효과 검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세 가지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식별할 수 있었으나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만 비교적 안정적(robust)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다집단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 간 의사소통격차 완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학업성취, 형성지표, 민감도 분석

## I. 서론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의 연구들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가정배경(방하남·김기현, 2002), 사회·문화자본(박현진·김영화, 2010), 부모 교육기대(임선아, 2012), 양육방식(변수용·김경근, 2008), 자아효능감(유경훈, 2009) 등에 주목해왔다. 연구결과에서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문화자본도 풍부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적 관여를 바탕으로 유능감을 견집,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합리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으며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와 관련

1)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postcentre@hanmail.net

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 다수는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과 양육방식의 중요성에 동조하면서도, 정작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은 방과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가정 내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조율하는 매개체이자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Arroyo et al., 2012)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내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하는데(Koesten, 2004), 이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연고로 그간 국외의 의사소통 연구자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 유형을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Koesten, 2004), 학업성취(Fallahchai & Darkhord, 2011), 갈등관리(Zhang, 2007), 사회적 기술(Arroyo et al., 2012)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화 결과물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결과에서 이들은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 자존감 증진 등에 기여하는 핵심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훈육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을 결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녀의 지능발달 저해와 학교부적응 문제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수직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나예, 2010). 유교주의의 개념에는 도덕적 인간, 사회적 조화, 집단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Chan & McNeal, 2003), 이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수평적 대화보다는 부모의 통제와 훈육이 중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대중매체의 발달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으로 이어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회와 관심을 저해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전통적 가치관이 강고하며(최석만, 1995) 부부 맞벌이 등으로 자녀교육 및 대화에 신경 쓸 여지가 적다(McNeal, 1999)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 계층 간 자녀의 중요한 성취격차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판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다시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e.g., Chan & McNeal, 2003; Lareau, 2003)는 이러한 우려를 방증해 주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Chaffee et al.(1971)이 가족의 의사소통유형(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을 정초한 이래, Ritchie & Fitzpatrick(1990) 또는 Barnes & Olson(1982)의 FCP에 입각해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 대다수는 가정 내 의사소통을 계층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상당수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발달 및 동기를 중심으로 또래관계, 학교적응, 문제행동 등에 편중되어 왔다. 특히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효능감 및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일정수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별로 수행된

적이 없었다. 아울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이나 진로의식, 학교적응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자녀의 중요한 교육적 성취 준거인 학업성취와, 기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수준에서 대표성 있게 수집된 자료인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을 활용하여,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와 그 영향력을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가정배경뿐만 아니라 종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주목받아왔던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을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 연구자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사회화 결과변수인 젠더 역시 모형화 하여,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 같은 시도는 재생산 전략의 기제로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의 구체적인 현주소와 그 영향력을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 그리고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전술한 두 가지 연구문제의 구조적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광의의 개념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나,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사회화 효과에 주목하여 Barnes &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본고에서도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에 주목하여 그 맥락적 의미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가정 내 의사소통의 개념, 유형 및 의의

의사소통은 상호 간의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감정이나 태도, 믿음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창덕, 2006). 특히,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Olson & McCubbin(1982)은 가정 내 의사소통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나누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로 정의하였으며, Ritchie & Fitzpatrick(1990)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수단으로 개념화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주시한 바 있다.

한편, 일군의 학자들은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몇 가지 차원에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자 시도해 왔다. 1970년대 전후 초기 연구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이 행동관리와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포괄하는 부모양육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Fujioka & Austin, 2002). 이와 관련하여, Baumrind(1978)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권위적(authoritative), 독재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권위적 양육방식이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과 더불어 애정 및 잦은 대화와 같은 수용성이 혼재된 양육방식을 의미한다면, 독재적 양육방식은 부모의 수용성은 결여되고 통제와 요구가 강조되는 일방적인 양육방식을 뜻한다. 한편, 허용적 양육방식은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만을 중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권위적 양육방식을 지향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통제 및 수용적 태도 그리고 내재적 동기 등을 함양함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목할 점은 권위적, 독재적 양육방식 모두 높은 수준의 규율 준수를 강조하지만, 권위적 부모들은 개방적 토론을 통해 그들의 요구에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들 부모는 자녀의 자율적, 능동적 사고의 균형을 도움으로써 자녀에게 학업적, 사회적 유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혼재되어 있던 의사소통 유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Chaffee et al.(1971)이 처음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CP)을 사회지향성(socio-orientation)과 개념지향성(concept-orientation)으로 정초한 데서 기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지향성 대화 유형은 가족 내의 조화를 강조하며 갈등과 언쟁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컨대, 논쟁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거나 대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개념지향성 대화 유형은 자녀가 가정 밖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감추기보다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Chaffee et al.(1971)의 FCP 모형은 사회문제, 학업성취 등과 같은 사회화 결과 변수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Ritchie를 위시한 일련의 학자들은 측정방식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Ritchie(1990)는 사회지향성 개념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보다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부모의 권력과 통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지향적 대화는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Ritchie & Fitzpatrick(1990)은 의사소통 유형의 두 차원을 일치지향성(conformity orientation)과 대화지향성(conversation orientation) 개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일치지향성 유형의 대화가 빈번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의견의 동질성과 획일성을 강조한다. 한편, 대화지향성 부모는 사고 및 태도에 있어 이질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이들 부모

는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과 독립성 나아가 제약되지 않은 상호작용에 가치를 둔다(Zhang, 2007).

전술한 논의 이외에도, Barnes &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자녀의 자율성과 부모의 수용 정도으로써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서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체계적인 의사 소통망을 성립, 발전시켜나가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가정은 저조한 대화빈도 및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장해순·강태완, 2005).

한편, 가정 내 의사소통의 유형 및 특징은 성별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Barnes et al.(1985)은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모두 의사소통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내 몇몇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해순·강태완, 2005; 허나예, 2010). 아울러,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또는 중국의 부모들은 사회지향성 대화를 지향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개념지향성 대화를 견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an & McNeal,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정 내 의사소통 유형과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각 이론들이 가정의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각 유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방적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개념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Grusec & Hastings(2006)은 부모-자녀 간의 성공적인 대화는 상호 간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개방성과 명료성에 달려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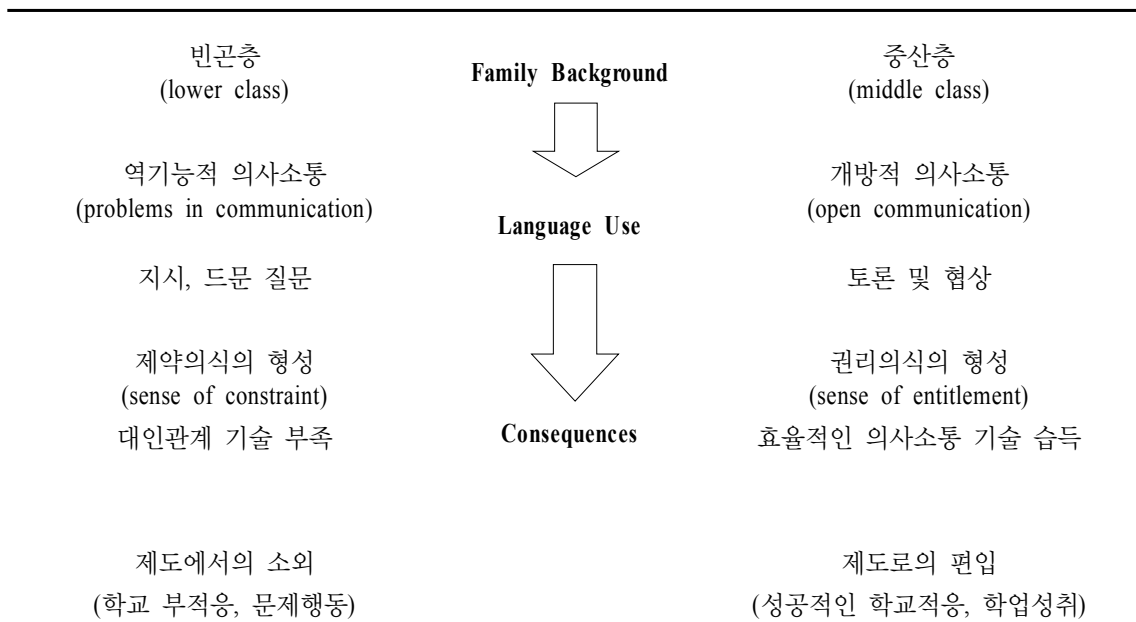
## 2. 가정 내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

가정배경에<sup>2)</sup> 따른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차는 곧 계층 간 판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양육

2) 지위획득 연구나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배경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e.g., 방하남·김기현, 2002; 장상수, 2004). 여기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직업지위로 구성되는데(Sackett et al., 2009), 이들 지표는 가정의 사회, 문화자본 축적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적 성취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에서도 가정배경에 따른 각 변수들 간의 인과적 선후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가정배경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으로 가정배경을 정의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군의 국내외 학자들은 계층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와 그 결과에 주목해 왔다(e.g., 윤인진 외, 2007; Schaub, 2010). 구체적으로, Schaub(2010)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녀의 인지적 발달이 중산층 부모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 부모들은 교육을 자녀의 경제적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가정 내 양육방식의 구체적인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계층 차이가 목도된다. 이와 관련하여, Lareau(2003)는 중산층과 하위계층 간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중산층 자녀들은 부모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체득하는 반면, 하위계층 자녀들은 부모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지시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순응, 즉 제약의식(sense of constraint)을 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areau(2003), Barnes & Olson(1982) 재구성

[그림 1] 가정배경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즉,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론 및 협상을 근간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중산층 자녀들은, 교사나 가정 밖 성인과 같은 권위적 인물들과도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 내에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제약의식을 체화한 아이들은 대인관계 기술 부족 및 자존감 결여로,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으로 표출될 개연성이 높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례를 분석한 Chan & McNeal(2003) 또한 부모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념지향성 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계층과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관계를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의 맥락 속에서 구명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유백산·신수영(2012)과 장해순·강태완(2005)에 따르면 가정배경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원만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1,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경애·정민정(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 3. 가정 내 의사소통과 학업성취, 가정배경, 학업성취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이상의 내용을 통해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정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 내 의사소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관련된 주요변수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보다 적합한 연구모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가정 내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그간 국내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은 다른 변수들에 견주어 보았을 때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정의 양육방식 또는 사회자본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들 변수의 중요성에 견주어 보았을 때,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주목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유교주의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부모의 애정과 지지가 뒷받침되더라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을 부모의 교육적 관여 측면에서의 양육방식 또는 관계성만으로 측정한 사회자본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sup>3)</sup> 반면,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Barbato et al., 2003).

둘째, 실제로 과거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대화수준으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부모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는 것이다(Bandura et al., 2011). 다음으로 합리적·민주적 의사반영에 기반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및 유능감 증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업참여 및 사회자본 확충에 이바지함으

3) 일례로, Baumrind(1978)의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방식 또는 Lareau(2003)의 조율된(concerted)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만을 반영하는 양육방식 또는 애정과 정서적 지지만을 측정하는 사회자본의 개념으로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로써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주입식 위주의 수업과 평가에서는 특히 두 번째 경로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을 공산이 클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교육시스템은 교육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기술의 부재는 대화과정 뿐만 아니라 수업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Yahaya & Ramli, 2009). 아울러 의사소통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저조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이 낮다는 보고(Richmond & McCroskey, 1998)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생-교사 관계와 같은 기타 변수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Ullrich & Kreppner(1997)와 Fallahchai & Darkhord(2011)는 자녀의 학업성취 발달 수준을 가정의 의사소통양식과 연계하여 조사하였는데, 부모-자녀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우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을 학업성취와 연계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개방적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은 자녀의 학습동기(김현주, 2008)와 학업성취도(변영인, 2005)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장영애(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논리·수학,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지능과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 나.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학생-교사관계, 부모 교육기대, 자아효능감의 관계

### 1) 가정배경과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먼저, 가정배경과 관련하여 Parcel et al.(2010)은 가정에서의 물질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히 필요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은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가정배경은 비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과 자녀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기대 및 학생-교사관계 나아가 자아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교육적 수준의 정도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stry et al., 2009). 그런데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ura et al.(2011)은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에 대한 모의 기대교육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재훈·김경근(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학생-교사 관계는 학교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김경식·이현철, 2010).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사회 내에서 개인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제약하는 유대,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보나 지원 등을 의미(Bourdieu, 1977)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을 통해 소속감과 지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학교생활 및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련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학교 내 사회자본 역시 학생의 가정배경 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명진 외, 2010; Hill et al., 2004). 이 같은 결과는 학생-교사 관계가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정배경에 따라 그 관계가 상이하게 존재하는바 오히려 학생-교사 관계에 의해 계층 간 불평등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계층에 따른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의 차이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관련해서도 목도된다. 자아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낮은 자아효능감은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유경훈, 2009). 그러나 이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 역시 가정배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Schunk & Pajares(2009)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학교 및 관련 프로그램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녀의 자아효능감 및 학습경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오윤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이 있거나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가정 내 의사소통, 부모 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의사소통기술 및 권리의식 증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의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 및 효능감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심희옥·김영미, 2000; Lee, 1994). 요컨대,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대화가 자녀의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해순·강태완, 2005; Jang & Kim, 2012). 이와 관련하여, Jang & Kim(2012)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자아효능감(social self-efficacy)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장해순·강태완(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신감과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유사성 및 타자로부터의 설득력 있는 정보는 자아효능감 측정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Bandura, 1997).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교사와의 관

계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맥락에서, Furrer & Skinner(2003)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교사신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 나아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숙정, 2006).

한편, 국내외에서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동기에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Barbato et al., 2003),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모 교육기대와의 정적인 상관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 및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의 정적인 상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선아(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수학적 자아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있다. 이점에서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아효능감 및 학교 내 학생-교사 관계까지 인당한다고 가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경로를 경쟁모형으로 삼아 분석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전술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1차-4차 자료 중 중3 코호트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중심이 되는 4차년도(2007년) 자료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일반계고의 경우 기존패널 1,240명(외고, 과학고, 예체능고 30명 포함)에 과학고와 외국어고 학생 343명이 추가 조사된 1,5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이 시기의 학업성적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고교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이자 대학진학의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1,583명 중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고와 외고 등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 1,11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4)</sup> 아울러 부의 직업의 경우 직업점수로 환원할 수 없는 직군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반고 학생 1,111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2007년에 새로 표집된 특목고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재하며, 이들을 MAR(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 하에 결측치 처리를 하더라도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가 적은관계로 정보의 손실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각 변수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수준은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자료의 제약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에 선행하는 1차년도 자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장기간 축적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쉽게 변하지는 반면, 교육기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박수익, 2010)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부모의 교육기대에 선행하는 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은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변수설정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차년도 자료의 부의 학력 및 직업 그리고 가구소득으로 구성되었다. 부의 학력은 무학 0, 초졸 6, 중졸 9, 고졸 12, 전문대졸 14, 4년제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의 값을 부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한편, 부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사된 문항에 Ganzeboom & Treiman(1996)의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을 측정한 문항을 편포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은 보호자와의 관계 중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반영하는 3개 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별로 ‘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보호자는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로 측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변수를 생성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다시 평균 내어 구성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아버지(.711), 어머니(.748)였다.<sup>5)</sup>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로 조사된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투입하였다.<sup>6)</sup> 그리고 학생-교사관계는 ‘있다’ 또는 ‘없다’로 측정된 이분형 변수(dichotomy variable) 4문항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였다. 자아효능감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은 무리 없이 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5) 김윤희(1990)가 번안한 Barnes & Olson(1982)의 개방적 의사소통 측정 문항의 경우 ‘나의 소신을 아버지(어머니)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쓰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등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부모 교육기대수준은 기본적으로 부의 학력 변수의 사례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교육연한으로 변환되었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3년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14.5의 값을 부여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990이었다. 끝으로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수준**은 지난학기 성적을 학생에게 9 등급으로 묻고 있는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치와 왜도, 첨도의 문제를 확인한 이들 변수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 나. 연구모형

하단의 [그림 2]에 제시된 기저모형(baseline model)은 전술한 이론적 배경 및 변수들로 구성된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는 형성지표(formative indicator)라는 점을 고려하여 MIMIC(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종래의 연구 다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로 측정해 사용해 왔으나, 이 같은 지표의 불명확성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저해하며, 1종 오류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amantopoulos & Siguaw, 2006).

본 연구에서는 MIMIC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 가정의 SES와 부모 교육기대의 경로를 1로 고정하여 측정 척도로 삼았다.<sup>7)</sup> 아울러 직업, 소득, 학력으로 결정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오차분산은 0으로 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학력, 직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아울러 이것은 PLS(Partial Least Squares) 절차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형성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절차 이외에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및 형성지표의 비례제약(proportionality constraint)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Diamantopoulos, 2011). 구체적으로 형성지표의 경우 반영지표와 다르게 회귀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의 직업은 소득과 학력으로 이루어진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경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측정 결과, VIF 지수는 1.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의 소지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형성지표로 구성된 변수는 각 지표의 효과를 매개하여 내생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SES의 오차분산을 제거했을 때, 부모 교육기대에 대한 형성지표의 영향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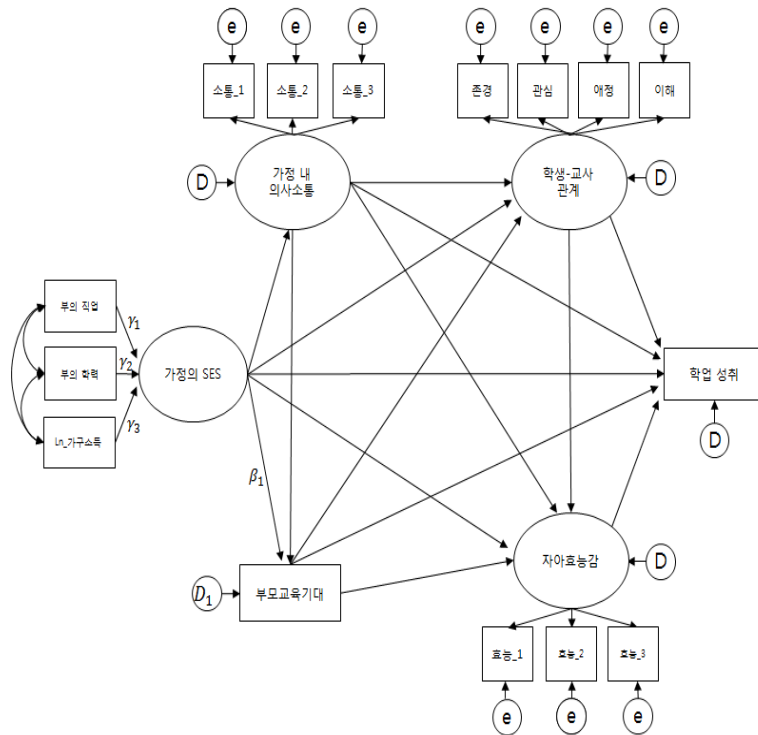
$$\text{Eq.(1) 부모 교육기대} = \beta_1(\gamma_1 \text{부의 직업} + \gamma_2 \text{부의 학력} + \gamma_3 \ln \text{가구소득}) + D_1$$

즉, 가정의 SES는 각 형성지표의 영향( $=\gamma_i\beta_i$ )을 부모 교육기대에 매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지표 각각의 효과는 비례적 관계로 나타난다. 예컨대, 부모 교육기대에 대한 가정의 SES 효과가 가정 내 의사소통의 두 배 라면 각 형성지표의 영향력 역시 두 배에 근접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성적 구인에 대한 각 지표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7) 형성적 구인(construct) 지표의 유의성은 척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형성지표 경로보다는 내생변수와의 경로를 고정하거나 잠재변수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권고된다(Diamantopoulos, 2011). 본 연구에서 가정의 SES와 부모 교육기대의 경로를 1로 고정하여 척도로 삼았다.

요컨대, 형성지표가 내생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 또한 지니고 있다면 비례제약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가정의 SES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부모 교육기대와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한 가정의 SES의 영향력을 비교할 경우, 학력 지표는 소득이나 직업지위에 비해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바 비례제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형성적 구인을 상정하기보다는 각각의 관측변수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례제약 충족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내생변수에 대한 형성지표의 직접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형성지표와 각 내생변수 간 비례 제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그림 2] 기저 모형(baseline model)

한편, 상단의 기저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며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연구문제 수행에 앞서 모형경쟁을 통해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생-교사관계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개연성이 있다. 이점에서 부모 교육기대가 학교 내 학생-교사 관계까지 인당한다고 가정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 및 교육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자녀의 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

다. 부모의 애정 있는 수용적 태도와 자율성 부과가 자녀의 자아효능감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홍영란, 2009)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가정차원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전술한 두 경로가 모두 제거된 것이다.

###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모형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연구에 적합한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도출된 연구모형을 통해 전술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Sobel 검정은 매개효과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는바, 표준오차를 수정한 신뢰구간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bootstrapping 방식이 권고된다(Muthe'n, 2011). Bootstrapping 추정횟수는 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n=2,000$ 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매개효과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Imai et al.(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을 탐색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집단의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과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그리고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로 이분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모수추정을 위해 WLSMV(Mean- and Variance-adjusted Weighted Least Square)를 사용하였다. WLSMV는 범주형 변수 분석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며(Brown, 2006), 적은 표본수와 비정상 분포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ora & Curran, 2004). 각 모수는 대각가중행렬(diagonal weight matrix) 및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그리고 강건평균 및 분산조정(robust mean- and variance-adjusted)  $\chi^2$  통계치에 기반하여 도출된다. 이점에서 모형적합도 테스트는 Satorra-Bentler-Scaled  $\chi^2$  통계치와 유사하다(Byrne, 2011 재인용). 결측치 처리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비해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할 확률이 적고, MI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이 1종 오류의 개연성을 높이는바,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MI이나 이에 상응하는 FIML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Graham, 2009).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7.0 프로그램과 Mplus 6.11 버전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전체모형

#### 가. 전체집단 연구모형 도출

먼저 전술한 연구목적에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기저모형 이외의 3개의 경쟁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학생-교사관계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이며 두 번째 경쟁모형은 부모 교육기대와 자아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제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에서는 전술한 두 경로가 모두 제거되었다. 각각의 경쟁모형들은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chi^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WLSMV로 모형을 추정할 경우 ML(Maximum Likelihood)과 같은 모형 식별에 기초한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유도가 계산되기 때문에,  $\chi^2$  차이검정은 Mplu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정된  $\chi^2$  차이검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아울러  $\chi^2$  차이검정은 표본 수나 비정규성에 민감한 관계로,  $\chi^2$  차이검정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표본 수에 덜 민감한 TLI(Tucek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병행하여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였다(Hong et al., 2003).<sup>8)</sup>

〈표 1〉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i>Test</i>	$\chi^2$	<i>df</i>	<i>Model comparison</i>	$\chi^2_{diff}$	<i>TLI</i>	<i>CFI</i>	<i>RMSEA</i>
Baseline model: saturated model	112.263**	75			.981	.987	.021
Alternative model: model I	110.536**	76	B vs I	1.207	.983	.988	.020
Alternative model: model II	112.719**	76	B vs II	1.953	.982	.987	.021
Alternative model: model III	110.645**	77	B vs III	1.459	.984	.988	.020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001-.002 수준이었으며, 기저모형과 각 경쟁모형과의  $\chi^2$  값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었다(〈표 1〉 참조). 이상의 결과는 경쟁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저 모형에서 설정된 경로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여 model III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기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높은 학력주의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 교육기대가 학생-교사관계와 더불어 자아효능감까지 인당해 줄 개연성은 낮다고 볼

8) Hu & Bentler(1999)에 따르면, CFI와 TLI(NNFI)는 .95 이상 그리고 RMSEA .06 이하를 좋은 모형 적합도(good fit)로 볼 수 있다.

수 있다. 아울러 선정된 모형의 적합도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TLI= .984, CFI=.988, RMSEA=.020) 제시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측정모형 모수추정치

여기서는 앞서 도출된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단의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 및 형성적 구인을 설명하는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반영지표의 경우 표준화 계수는 최소 .4이상이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정의 SES를 설명하는 형성지표 계수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반영지표에 비해 떨어졌으며 가구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의 SES를 가구소득이 타당하게 조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Eq.(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성적 구인의 영향력은 내생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각  $\gamma_i$ 의 영향력 역시 어떤 내생변수를 설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Diamantopoulos, 2011). 이점에서 단순히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하여 형성지표를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형 식별을 위해 오차분산을 제거한 관계로 가정의 SES를 학력, 직업, 소득으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측정변수	형성지표 (formative indicator)		반영지표 (reflective indicator)	
	가정의 SES	가정 내 의사소통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부의 학력	.782(.083)***			
부의 직업	.230(.106)*			
Ln_가구소득	.141(.104)			
소통_1		.729(.024)***		
소통_2		.744(.023)***		
소통_3		.761(.022)***		
효능감_1			.538(.034)***	
효능감_2			.846(.042)***	
효능감_3			.453(.033)***	
존경				.730(.032)***
관심				.735(.032)***
애정				.726(.033)***
이해				.850(.028)***

주)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다.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하단의 <표 3>는 전체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 가정배경은 가정 내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 $\beta=.183$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렇게 강화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생-교사관계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제하더라도 학업성취( $\beta=.091$ )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가정배경 수준은 부모 교육기대( $\beta=.335$ ), 학업성취( $\beta=.108$ ), 자아효능감( $\beta=.077$ ), 학생-교사관계( $\beta=.073$ )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요컨대, 풍부한 가용자원을 향유할 수 있고 부모의 사회·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가정 안팎으로 다양한 편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가정배경의 영향력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정 내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이외에도 부모 교육기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자아효능감( $\beta=.115$ )과 학생-교사관계( $\beta=.192$ )와 관련해서만 식별되었다.<sup>9)</sup> 즉, 가정 내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권리의식(Lareau, 2003)과 사회적 기술(Ledbetter, 2009)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가정 내 의사소통을 통해 강화된 자아효능감은 학업성취( $\beta=.068$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교사관계 역시 학생의 자아효능감( $\beta=.266$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beta=.139$ )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학교 내에서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능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교내 학업성취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Parameters			b	$\beta$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126(.029)***	.183(.035)***
가정의 SES	→	부모 교육기대	1	.335(.030)***
가정의 SES	→	학생-교사관계	.073(.040) <sup>†</sup>	.073(.039) <sup>†</sup>
가정의 SES	→	자아효능감	.046(.023)*	.077(.036)*
가정의 SES	→	학업성취	.217(.073)**	.108(.034)***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229(.140)	.053(.032)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101(.035)**	.115(.039)**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279(.064)***	.192(.043)***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업성취	.266(.103)**	.091(.035)**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79(.020)***	.117(.030)***
학생-교사관계	→	자아효능감	.160(.031)***	.266(.044)***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280(.079)***	.139(.039)***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226(.127) <sup>†</sup>	.068(.038) <sup>†</sup>

주) 가정의 SES-부모 교육기대 계수는 척도화 값임.

<sup>†</sup>  $p < .10$  \*  $p < .05$  \*\*  $p < .01$  \*\*\*  $p < .001$

9) 부모 교육기대수준의 경우, 부모-자녀 사이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형적 비례관계는 제한적일 개연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어윤경(2009)은 갖은 대화와 상담은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포부수준이 형성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라. 매개효과 검증(test of mediation effects)

본 절에서는 앞서 검증했던 구조모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이와 그 결과를 학업성취와의 관계 속에서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Bootstrapping 추정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참조).

이상의 결과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수이며, 학생-교사관계 또한 가정 내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학업성취에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이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아이들이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면서, 교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추정치

Mediation Effects	b	β	95% BC CIs	99% BC CIs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업성취	.034*	.017*	.01, .07	-.01, .08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02	.001	.00, .01	-.01, .01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010**	.005*	.01, .02	.01, .03
가정의 SES →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03	.001	.00, .01	-.01, .01
가정 내 의사소통 → 부모 교육기대 → 학업성취	.018	.006	-.01, .05	-.01, .07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078**	.027**	.03, .15	.02, .17
가정 내 의사소통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23	.008	-.01, .07	-.01, .09
가정 내 의사소통 → 학생-교사관계 → 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010	.003	-.01, .03	-.01, .03

주) Bias corrected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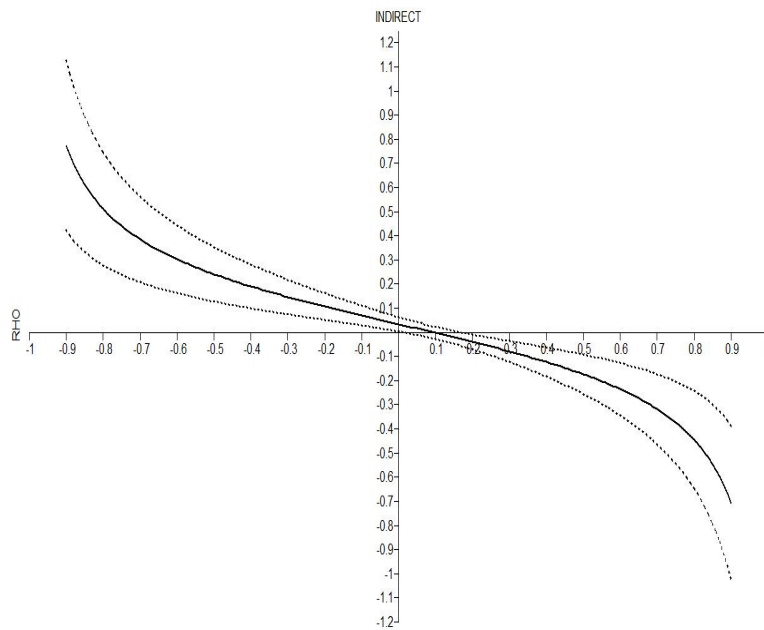
\*p<.05 \*\*p<.01

그런데,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된 매개효과들의 경우 그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Valeri & VanderWeele(2011)에 따르면, 각 매개효과가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처치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가 없어야 한다. 둘째,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처치변수-매개변수와 관련된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는 처치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앞서 전술한 세 가지 가정은 관련된 혼동변수를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최소한 근사값에 일치하도록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네 번째 가정의 경우, 무작위 실험연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 그런데, 관련된 모든 혼동변수를 모형 내 구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가정 위반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Muthe'n, 2011). 여기서는 Imai et al.(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Muthe'n(2011)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매개효과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sup>10)</sup>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매개변수-종속변수와 관련된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존재할 경우,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설명오차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관련된 혼동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명오차 간 상관(rho)은 0이며, 따라서 당해 rho를 변화시킴으로써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명오차 간에도 상관을 설정할 경우 모형식별은 불가능한바, 오차상관( $\tilde{\rho}$ )을 설정하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효과( $\beta_1$ )는 제거하고 Imai et al.(2010)이 제시한 추정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도출한다.<sup>11)</sup> 하단의 [그림 3]과 [그림 4]는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및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 교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볼드체로 표시된 중앙선은 추정된 매개효과와 비표준화 계수이며, 점선으로 표기된 상한선과 하한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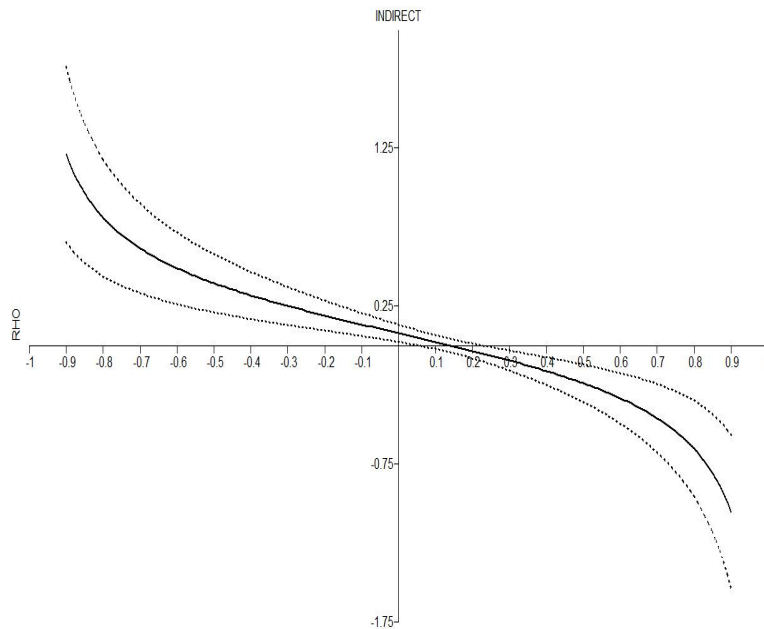


[그림 3]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

10) 이 방법은 처치변수( $X_i$ )의 무작위 추출, 즉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실험설계 과정에서 처치-종속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관측연구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네 번째 가정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11)  $\beta_1\gamma_1$ =매개효과,  $\gamma_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beta_1 = \sigma/\sigma_2(\tilde{\rho} - \rho\sqrt{(1-\tilde{\rho}^2)/(1-\rho^2)})$   $\sigma, \sigma_2$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오차의 표준편차,  $\tilde{\rho}$ =오차상관,  $\rho$ =민감도 모수(rho).

먼저 가정배경→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경로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rho=0 일 때 매개효과가 앞서 도출한 .034에 위치해 있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rho의 범위가 -.6에서 .03사이에서는 방향성과 유의성이 비교적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그러나 rho의 범위가 .04-.17일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며, .1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매개효과 추정결과 또한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의 주요 혼동변수인 가정배경을 통제하고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 내 의사소통의 직접효과를 제거하고 추정한 이들 변수 간 오차상관 역시 .065라는 점에서,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매개효과가 비교적 안정적(robust)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민감도 분석 결과

이밖에도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또한 rho=0 일 때 매개효과가 앞서 도출한 .078에 위치해 있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 참조). 그러나 rho의 범위가 .06-.22일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며, .15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매개효과 추정 결과 또한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오차상관이 .142로 식별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교사관계 및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누락된 혼동변수가 존재할 개연성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rho 값이 .06 이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은바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 결과는 쉽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상의 결과는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경로의 이중매

개효과 또한 일반화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다집단 분석(test of multi-group analysis)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관련 변수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각 집단에 적합한 연구모형은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는바, 형태동일성 검정단계에 앞서 다집단 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모형 도출 및 형태동일성 검정(test of configural invariance)

여기서는 먼저 각 집단에 적합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한다.<sup>12)</sup> 경쟁모형은 앞서 전체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기저모형과 model II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반면, 여학생의 경우 기저모형과 경쟁모형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효능감에 대한 부모 교육 기대의 영향이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구조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model II를 다집단 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Test	$\chi^2$	df	Model comparison	$\chi^2_{diff}$	TLI	CF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Baseline model: male	89.806	75			.984	.989	.019
Alternative model: model I	89.382	76	B vs I	.532	.986	.990	.018
Alternative model: model II	95.789	76	B vs II	4.546*	.979	.985	.022
Alternative model: model III	94.028	77	B vs III	3.979	.982	.987	.020
Baseline model: female	111.144*	75			.965	.975	.030
Alternative model: model I	109.360*	76	B vs I	1.021	.968	.977	.028
Alternative model: model II	110.854*	76	B vs II	.618	.967	.976	.029
Alternative model: model III	109.146*	77	B vs III	1.165	.970	.978	.027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형태동일성 검정작업은 제시된 연구모형이 비교하는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형태동일성 검정단계에서, 집단 간 연구모형 적합도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유지한다면,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각

12) 기술통계 확인결과, 전체모형과 마찬가지로 각 집단 간 이상치와 왜도, 첨도 상의 문제는 식별되지 않았다.

비교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Hong et al., 2003). 선정된 model II의 모형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Delta TLI=.012$ ,  $\Delta CFI=.009$ ,  $\Delta RMSEA=-.007$ ) 나타나 각 집단의 요인 구조가 분석에 적합한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측정동일성 검정(test of metric invariance)

각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작업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이 후 경로계수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측정도구의 오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가정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은 각 집단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모형과 동일화제약 모형 간의  $\chi^2$  차이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충족된다.

그런데, 범주형 자료의 경우 요인 적재치와 더불어 스레시홀드(threshold)가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에 영향을 미치는바, 요인 적재치 뿐만 아니라 스레시홀드 또한 동시에 동일화 제약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Muthe'n & Muthe'n,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uthe'n & Muthe'n(2010)이 제안한 delta parameter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집단 비교를 위한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은 스레시홀드와 요인 적재치를 각 집단에서 전부 자유롭게 추정하되, 모형식별을 위해 척도인수(scale factor)<sup>13)</sup>와 요인평균(factor mean)을 각 집단에 각각 1과 0으로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각 집단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척도인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스레시홀드의 추정이 가능하며, 요인평균 또한 스레시홀드와 동시에 추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측정 동일성 단계에서는 스레시홀드와 요인 적재치를 각 집단에 동일하게 고정하되, 범주형 변수의 척도인수와 요인평균은 한 집단에만 고정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추정하였다. 요인분산은 각 집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척도인수를 각 집단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각 집단이 무작위로 표집된 것이 아닌 관계로 요인평균과 요인 적재치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각 집단에 동일하게 고정할 경우 각 집단 간 상이하게 존재하기 마련인 문항분포(item distribution)를 상정하기 힘들다.

분석결과,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chi^2$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 적합도 변화율 역시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표6 참조>). 아울러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나( $TLI=.977$ ,  $CFI=.982$ ,  $RMSEA=.023$ ) 제시된 모형이 자료와 알맞게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척도인수는 범주형 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 $y^*$ )의 역표준편차(inverted standard deviations)를 의미한다. 따라서 척도인수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와 요인분산(factor variance), 그리고 잔차분산(residual variance)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아울러 승법적(multiplicative) 특성을 지닌다(Muthe'n & Muthe'n, 2010).

〈표 6〉 동일성 검정

Test	$\chi^2$	df	Model comparison	$\chi^2_{diff}$	TLI	CFI	RMSEA
Configural model (baseline model): model II <sup>14)</sup>	197.831**	152			.977	.988	.023
Metric invariant model	210.008**	161	C vs M	13.351	.977	.982	.023
Structural invariant model	217.986*	174	M vs S	16.761	.981	.984	.021

\* $p < .05$  \*\* $p < .01$  \*\*\* $p < .001$ 

#### 다. 구조동일성 검정(test of structural invariance)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13개 경로 모두에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chi^2$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 적합도 변화율 역시 .0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표 6〉 참고).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성별에 따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본고에서 설정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그 영향력 또한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격차 구명이라는 목적 하에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가정 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자주하며 여학생의 경우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e.g., 장해순·강태완, 2005; 허나예, 2010)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변량이 감소하여, 그 효과가 완충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둘째, 여기에 더해 본 연구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독립표본 T-test 검정결과, 성별에 따라 부와 모 그리고 부모(평균)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지각수준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5)</sup>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생변수인 부모교육기대,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 학업성취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외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효과를 성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의 경우 성별 집단 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지만 그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MLM(Maximum Likelihood Mean-adjusted)이나 WLSMV와 같은 강건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형태동일성 모형의  $\chi^2$  값은 각 집단의  $\chi^2$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Byrne, 2011).

15) 이영숙·김정옥(2002), 고경애·정민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지각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V. 요약 및 결어

### 1. 요약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모형 검증결과 가정배경은 가정 내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또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이밖에도 가정배경수준은 부모 교육기대, 학업성취, 자아효능감, 학생-교사관계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요컨대, 풍부한 가용자원을 향유할 수 있고 부모의 사회·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가정 안팎으로 다양한 편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셋째, 가정 내 의사소통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자아효능감 및 학생-교사관계와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업성취 및 자아효능감도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업성취,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및 학생-교사관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 및 가정의 SES→가정 내 의사소통→학생-교사관계→학업성취의 경로의 경우 일반화에 있어 일정수준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성별 집단 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제시된 모형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임을 시사하였다.

### 2. 결어

가정 내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자녀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도 원만하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견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최근 확대기로에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 및 역할이 중시되고 리더십과 도전성 등과 같은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권리의식 및 자기주도성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비단 교과영역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내 성취로도 표출될 개연성이 높다. 예컨대, 학교에서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로 및 진학지도에 긴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3,000개가 넘는 현 대입전형(2012년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그런데도 그간 국내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관련된 연구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발달 및 동기를 중심으로 또래관계, 문제행동 등에만 편중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상수, 2004) 계층적 관점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을 접근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었다.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은 가정 내 양육방식의 구체적인 한 형태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가정 내 의사소통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가정배경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수준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부모 교육기대 및 학생-교사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 변수들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지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정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교사관계와 같은 변수를 경유하여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권리의식과 사회적 기술을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교사관계도 원만하고 효능감도 높으며 성공적으로 교내 학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계층 간 자녀의 성취격차로 이어지는 주효(奏效)한 재생산 전략 기제의 일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양식 격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모의 지적, 학업능력을 대변하는 학력과 직업지위의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이다. 주지하듯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긴밀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자녀에게 투자 할 개연성이 높다(Parcel et al., 2010). 나아가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

16) 일례로, 교사 추천서를 제시하는 전형의 경우 틀에 박히지 않고 수험생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교과 및 동아리 교사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권장된다(조선일보, 2012.3.7). 더불어 최근에는 교사 추천서의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항목의 중요성 또한 제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12.5.31).

수업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한 부모의 사전적 지식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Park, 2008).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유교주의 문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수직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점에서 부모학력과 직업지위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요컨대, 학력수준이 높고 고위직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현대사회 구조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 및 자기 주도적 태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녀와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견집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sup>17)</sup> 아울러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참작하여, 계층과 무관하게 부모들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부부 맞벌이나 과중한 스케줄은 자녀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다(McNeal, 1999).

이상의 진단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층에 따른 의사소통 격차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성취 및 교사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득한 사회적 기술 및 권리의식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래에 수행되어 왔던 학습부진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에서 부모-자녀 간 대화의 중요성을 제고토록 하여, 부모의 훈육적 또는 일방적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층에 따라 정책적 효과는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책적 방향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 접근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적 자원대체이론(public resources substitution theory)은 선진국일수록 부모 관여의 효과가 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공자원의 질과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재생산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에 따르면 국가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상류층들은 그들의 가용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자녀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보완적무형이론(complementary intangibles theory)<sup>18)</sup>은 선진국의 풍족한 물질적 가용자원이 부모 관여와 같이 비가시적인 형태의 자원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Caro, 2011).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공공자원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격차에 따른 계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전문계 인력 산업계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하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24.4%), 실무경력(21.9%), 관련자격증(18.4%), 전공(18.2%)순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인재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1%가 창의성을 꼽고, 이어 전문성(65.0%), 도전정신(59.0%), 도덕성(52.0%), 팀워크(43.0%), 글로벌 역량(41.0%), 열정(29.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아시아투데이, 2008.9.18).

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도서 구매를 위한 소득과 같은 물질적 자원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같은 비가시적 과정(intangible process)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독서를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만 부모와의 토론은 독서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선진국 가정의 자녀들은 열악한 가정자원 또는 대가족 문제 등으로 형제자매와 경쟁할 필요성이 적고 모의 가사노동 부담이 적은 관계로, 가정 내 비가시적 형태의 자원을 누리기가 훨씬 수월하다(Chiu, 2010).

층 간 양극화와 지위획득 기제로서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주의 실태를 감안해 본다면, 가정 내 양육방식은 사회재생산이론의 측면에서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상호보완적 무형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집단 내에서는 상류층 가정의 자녀일수록 비가시적인 형태의 자원을 누리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용·김경근(2008)은 학생·생활지도 형태의 교육적 관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영어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과목에서는 교육적 관여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이들이 지닌 풍부한 가용자본을 심분 활용하여,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관여의 영향력은 개인이 속한 교육제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바,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형태 또는 대응하는 종속변수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하게 표출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Caro(2011)와 Park(2008)은 한국의 경우 가정 내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저학력 또는 낮은 계층에게서 그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Park(2008)에 따르면 교육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미국 등과 다르게 교육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부모들 역시 자녀의 발달과정이나 표준화된 학업성취 향상에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중·상류층 자녀의 인적자본 향상 여지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마련인데,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의 투명성과 책무가 상류계층보다 저소득층 가구에게서 의사소통의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가설 하에 그는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대화빈도와 가정배경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Caro(2011)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대화빈도와 부모학력의 상호작용항이 부적인(negative)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가정배경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계로 식별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기반해 보았을 때,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제언사항은 학생-교사 관계가 학생의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구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학생-교사 관계는 학교 내 사회자본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포부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식·이현철, 2010). 실제, 본 연구에서도

19) 이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영어과목에서 계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 영어실력 평가기준 및 수요에 공교육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교사관계가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확대기로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교 내 교사의 평가 및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교사관계의 중요성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교사관계가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류층에서는 학생-교사관계가 학업성취 증진과 관련하여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는 반면, 빈곤계층의 경우 악순환 고리로 기능,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케 한다. 주지하다시피, 빈곤 계층 자녀들은 폭력과 스트레스, 비행,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는데(Murray & Malmgren, 2005), 학교 내 교사관계가 이러한 구조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이에 따른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구조에 상당부분 결정되는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제도권 내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상류층 자녀의 차별화된 문화자본과 습속(Bourdieu, 1977), 빈곤 계층 자녀의 사회적 기술 부재(Ledbetter, 2009), 성실하고 자기 규율적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선호(Hughes & Kwok, 2007)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교사들이 빈곤계층 자녀들이 노정할 수밖에 없는 대화기술 부족 및 문제행동 등의 구조적 측면을 숙고하여 사명감과 공정성 갖고 학생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성취 지향적 학교 풍토나 과중한 교사업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한 소명만으로는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인력 등을 확보하여 빈곤 가정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애정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일정 부분 노정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정배경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격차를 부모교육기대, 학생-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의 관계 속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관련 변수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혼동변수가 초래할 수 있는 편이의 방향을 예측해 보았으나, 수집된 2차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가정배경 및 가정 내 의사소통과 같은 주요변수와 관련된 혼동변수를 모형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었다. 아울러 2차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잠재변수 구성에도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경식 · 이현철(2010).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부모, 교사, 교우 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58(1), 203-225.
- 김현주(2008). 부모 자녀 간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인문학연구*, 35(1), 327-351.
- 김윤희(1990). 夫婦關係. 父母-子女意思疏通. 家族機能과 청소년子女 非行과의 關係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수 · 홍성훈 · 윤은중(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고경애 · 정민정(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방하남 · 김기현(2002).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박수익(2010). 교육기대의 변화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2), 101-128.
- 박현진 · 김영화(2010). 가정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영어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4), 55-82.
- 변영인(200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과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2), 89-113.
- 변수용 ·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심희옥 · 김영미(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兒童學會誌*, 21(4), 159-175.
- 임선아(2012). 고등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기대와 참여,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적 관여도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2), 179-204.
- 유경훈(2009). 청소년의 가정 · 교실 환경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구조 모형분석. 7(1), 15-25.
- 유백산 · 신수영(2012).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 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4), 51-78.
- 오윤자(2004). 초등학생아버지-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01-219.
- 이명진 · 봉미미 · 권순구(2010).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소년의 진로포부 예측변인 비교. *教育心理研究*, 24(2), 423-447.
- 어윤경(2009). 대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와 진로상담이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담학 연구*, 10(3), 1555-1571.
- 이숙정(2006). 중,고생의 교사신퇴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20(1), *教育心理研究*, 197-218.
- 윤인진 · 임창규 · 정재영(2007).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 47, 167-192.
- 이영숙 ·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재훈 · 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13(2), 175-208.
- 이창덕(2006).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9, 351-388.
-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 ·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장해순 · 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3(2), 104-130.
- 장영애(201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115-129.
- 최석만(1995). 한국인의 연고주의 실태와 전망. *비교한국학*, 1, 115-130.
- 홍영란(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4), 392-400.
- 허나예(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3(2), 59-74.
- 동아일보(2012.5.31). ‘나눔 경험’ 없으면 입학사정관제 전형 통과 어렵다.
- 매일경제(2012.7.19). 인성면접 채용 국내 대기업 확산.
- 아시아투데이(2008. 09. 18). 국내 주요 기업 원하는 인재는 ‘창의적 인재’.
- 조선일보(2012.3.7). 입학사정관이 밝히는 “이런 추천서는…”.
- Arroyo, A., Nevárez, N., Segrin, C., & Harwood, J.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 and adult child shyness, social skills, and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2(4), 249-264.
- Barbato, C., Graham, E., & Perse, E. (2003). Communicating in the family: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mmunication climat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otive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3, 123-148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et al.,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 239 - 276
- Bourdieu, P. (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J. Karabel., & A. H. Halsey (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Regalia, C., & Scabini, E. (2011). Impact of family efficacy beliefs on quality of family functioning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pplied Psychology*, 60(3), 421-4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yrne, M. B. (201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Routledge.
- Chaffee, S. H., McLeod, J. M., & Atkin, C. K. (1971).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4, 32-40.

- Chan, K., & McNeal, J. U. (2003). Parent-child communications about consumption and advertising in China.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0(4), 317-334.
- Caro, D. H. (2011).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ssociations at the within- and between-country level. *Journal for educational research-country level*. 3(1), 15-37.
- Chiu, M. M. (2010). Effects of inequality, family and school on mathematics achievement: Country and student differences. *Social Forces*, 88(4), 1645-1676.
- Diamantopoulos A., & Siguaw J. (2006). Formative versus reflective indicators in organizational measure development: A comparison and empirical illustration.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7(4) 263-282.
- Diamantopoulos, A. (2011). Incorporating formative measures into co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s. *MIS Quarterly*, 35(2), 335-358.
- Fallahchai, R., & Darkhord, F.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Bandar Abbas city male and female students of third grade guidance school. *Journal of Life Science and Biomedicine*, 2(2), 29-33.
- Fujioka, Y., & Austin, E. W. (2002)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to Parental Mediation Styles. *Communication Research*, 29, 642-665.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raham, J. W. (2009). Missing Data Analysis: Making It Work in the Real World.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549-576.
- Ganzeboom. H. B. G., & Trieman, D. J.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5, 201-239.
- Grusec, J. E., & Hastings, P. D. (2006).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Spring Street, NY: The Guilford Press.
- Hughes, J .N., & Kwok, O. (2007). Influence of student-teacher an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on lower achieving readers'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the primary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39-51.
- Hu, L-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h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54.
- Hill N. E., Castellino D. R., Lansford J. E., Nowlin P.,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2004). Parent academic involvement as related to school behavior, achievement, and aspirations: Demographic variations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 1491-1509
- Imai, K., Keele, L., & Yamamoto, Y. (2010). Identification, inference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causal mediation effects. *Statistical Science*, 25, 51-71.
- Jang, J-Y., & Kim, Y-C. (2012). The effects of parent -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on children's

-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online communities: focusing on social self-efficacy and unwillingness to communicate as mediating factor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2(5), 493-505.
- Koesten, J. (2004).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ex of subjec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71(2), 226-244.
- Ledbetter, A. M. (2009).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Relational Maintenance Behavior: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Closenes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5(1), 130-147.
- Laura, R., Riikka, H., Asko, T., Kaisa, A., & Jari-Erik N. (2011). Parents' role in adolesc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6(6), 1-20.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S. (1994). *Family-school connections and student's education: Continuity and change of family involvement from the middle grades to high school*. Ann Arbor, MI: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 Muthe'n, B. O. (2011). Applications of causally define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mediation analysis using SEM in Mplus. Unpublished manuscript.
- Muthe'n, L. K., & Muthe'n, B. O. (2010). *Mplus user's guide (6th eds.)*.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McNeal, R. B. Jr. (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1), 117-144.
- Mistry, R. S., White, E. S., Benner, A. D., & Huynh, V. W.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simultaneous influence of mothers' and teachers' educational expectations on low-income youth'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6), 826-838.
- Murray, C., & Malmgren, K. (2005). Implementing a teacher - student relationship program in a high-poverty urban school: Effects on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2), 137-152.
- Parcel, T. L., Dufur, M. J., & Zito, R. C. (2010).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828-846.
- Ritchie, L. D., & Fitzpatrick, M. A.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 523 - 44.
- Richmond, V. A., & McCroskey J. C. (1998). *Communication apprehension, avoidance, and effectiveness (5th Ed.)* Boston, MA: Allyn Bacon.
- Park, H. (2008). The varied educational effects of parent child commun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fourteen countri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2(2), 219-243.
- Sackett, P. R., Kuncel, N. R., Arneson, J. J., Cooper, S. R., & Waters, S. D. (2009). Does socioeconomic status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ssions tests and post-secondary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135(1), 1-22.
- Schunk, D. H., & Mullen, C.A. (2012). *Self-Efficacy as an Engaged Learner*.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219-235.



- Schaub, M. (2010). Parenting for Cognitive Development from 1950 to 2000: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ss Educa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Parenting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83(1), 46-66.
- Ullrich, M., & Kreppner, K. (1997). The quality of family communi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Valeri, L., & VanderWeele, T. J. (2011). Extending the Baron and Kenny analysis to allow for exposure-mediator interactions: SAS and SPSS macros. Submitted to *Psychological Methods*.
- Yahaya, A., & Ramli,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skills towards academic achievement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Johor Bahru.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1(2), 25-34.
- Zhang, Q. (2007).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styles in Chin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Communication Quarterly*, 55(1), 113-128.

## ❖ Abstract ❖

###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Background, Family Communi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Yu, Baeksan<sup>20)</sup>

Drawing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differential by family background, and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 on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SES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In addition,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had a 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Furthermore, the bootstrapping test showed that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mediators of the effect of parents' SES on academic achievem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 exists in a different form for parents' SES, and this can lead to an achievement gap between classes. From this finding, several policy measures proposed to mitigate the gap between youths' achievement.

**Key words:** family background, family communication style, academic achievement, sensitivity analysis, formative indicator

---

20)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부록 1〉 측정변수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학업성취																
2. 부학력	.171(.030)															
3. 부의 직업지위	.151(.031) .547(.020)															
4. Ln_가구소득	.103(.029) .426(.023) .389(.024)															
5. 부모 교육기대	.174(.027) .312(.026) .242(.027) .235(.029)															
6. 개방적 의사소통_1	.150(.030) .175(.029) .120(.031) .062(.030) .096(.030)															
7. 개방적 의사소통_2	.098(.030) .143(.030) .077(.035) .061(.030) .055(.030) .520(.016)															
8. 개방적 의사소통_3	.122(.030) .117(.031) .082(.034) .053(.030) .106(.029) .545(.015) .598(.013)															
9. 자아효능감_1	.062(.029) .058(.030) .034(.031) .034(.030) -.012(.029) .019(.029) .051(.029) .028(.029)															
10. 자아효능감_2	.131(.030) .132(.031) .095(.031) .069(.030) .043(.031) .116(.029) .115(.028) .487(.018)															
11. 자아효능감_3	.071(.029) .054(.030) .004(.031) .022(.031) .007(.031) .115(.028) .123(.027) .089(.028) .271(.024) .336(.021)															
12. 교사관계_1	.194(.038) .041(.041) .073(.042) .010(.039) .052(.039) .105(.042) .074(.041) .044(.042) .106(.038) .175(.037) .123(.038)															
13. 교사관계_2	.134(.037) .109(.038) .073(.040) .059(.038) .032(.038) .135(.038) .134(.039) .130(.038) .138(.037) .213(.036) .085(.038) .504(.040)															
14. 교사관계_3	.153(.040) .066(.042) .035(.042) -.002(.042) .072(.40) .109(.041) .084(.041) .083(.040) .069(.040) .167(.040) .150(.039) .624(.036) .434(.043)															
15. 교사관계_4	.124(.037) .105(.039) .061(.040) .052(.038) .038(.038) .158(.039) .151(.039) .157(.038) 1.04(.038) .220(.036) .107(.038) .567(.037) .669(.032) .608(.036)															
16. 성별	-.063(.038) .060(.038) .030(.039) .106(.037) .058(.038) -.145(.037) .002(.039) -.005(.039) .011(.038) -.026(.038) -.015(.038) -.136(.049) -.038(.048) -.163(.049) .061(.048)															
평균	5.99	12.95	40.74	5.34	17.22	3.48	3.35	3.53	3.16	3.11	3.42	.64	.51	.46	.49	.50
표준편차	1.47	2.74	13.62	.49	2.17	.69	.74	.69	.82	.78	.77	.47	.49	.46	.49	.50
왜도	-.38	-.07	.98	-.16	.92	-.25	-.28	-.35	.09	.20	-.05	-.62	-.07	-.79	-.11	-.00
첨도	.23	.46	.54	.90	-.57	.15	.23	.59	-.29	-.02	.17	-1.61	-1.99	-1.36	-1.99	-2.00

주) (12-16)\*(1-11): biserial correlation, (13-16)\*(12-15): tetrachoric correlation, etc: pearson correlation